

# 도, 전북경영자총협회 소통 간담회

### 우범기 정부부지사, 코로나19 극복 위해 경제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건의 내용 검토해 반영 노력키로

전북도는 지난 3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경제인 간담회는 우범기 정부부지사,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창 상임부회장, 신민철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장, 김종원 전북은행 수석부행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경영자단체와 회원사 경영인들이 전라북도에 요청한 주요 내용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영업활동을 하다보니 제품홍보 및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19로 중단된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운영예산을 지역방송과 연계해 기업들의 제품 판매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개인 및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로 대출금 상환능력 하라시 신용등급도 하락해 이자율 상승 및 신규대출 거절로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태 입증시 CB사에 제출되는 개인연계기록 삭제 요청과 제품 개발부터 포장·디자인까지 지원하고 있는 전라북도 기업 지원사업들이 유동 트랜



전북도는 지난 3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우범기 정부부지사,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창 상임부회장, 신민철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장, 김종원 전북은행 수석부행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에 부합하지 못해 계약 성사율이 낮음에 따라 지원사업중 일부를 대형 유통회사 및 수출 전문기업 등과 도내 기업을 매칭하는 B2B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경영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우범기 정부부지사는 "건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에서도 전북도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된 기업의 생산 활동도 재개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8일 활용방안 등 모색키로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 전북학연구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8일에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무성서원의 보존·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종합정비 계획의 발판을 마련하여 향후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유진섭 정읍시장과 이흥재 무성서원 부원장의 축사,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혜준(공주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박성진(서원통합보존관리단 사무국장)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방향과 활용방안', 최주희(덕성여대 교수)의 '대구·경북 지역 서원의 현황과 현대적 활용사례', 박정민(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무성서원의 역사문화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관장을 좌장으로 김성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규철(한국외대 연구교수), 한문중(전북

대 교수), 허인욱(한남대 교수), 홍성임(전라북도 도의원)이 자유롭게 정책 제언과 토론을 이어간다.

무성서원은 한국의 서원 9개 중 유일한 도내의 서원이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았다. '마을 안 서원'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바탕으로 향촌 교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마을과 함께 해왔다.

학술대회에 앞서 센터는 110년 전 무성서원의 모습이 그려진 '월광도'를 보물로 지정하지는 이슈 브리핑을 발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칠광도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무성서원 주변에 산재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한다. 이후 10일에는 무성서원에서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 축전으로 'KBS 국악 한마당'이 진행된다.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무성서원의 가치가 도·내외 홍보될 수 있도록 지역, 학계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무성서원의 가치와 의미를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긴장 속 전북, 28번째 코로나 확진... '광주' 發

### 동선확인 결과 교회 등 다녀와

전북도가 인접지역들의 코로나19환자의 무서운 확산세에 바짝 긴장하고 총력 방역 태세이던 가운데 28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고창군 흥덕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30일 최초 몸살과 두통, 발열증세가 나타났다.

A씨는 다음날인 7월 1일 선운사 극락교를 거쳐 선운사 부근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후 오후 5시30분 경 흥덕보건지소를 방문, 상담하고 약국을 들른 것으로 진술했다.

이어 A씨는 7월 2일 오전 9시 30분 고창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체의뢰, 저녁 9시 넘어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여진 도 보건당국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대처가 또다시 도 마위에 올랐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인내하며 예방수칙 준수를 지

키는 가운데 방역 최일선에 서있는 보건직의 헌신 행동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1일 고창 흥덕보건지소 진료의는 A씨가 보건지소를 방문, 상담시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발견한 즉시 즉각 보고하고 선별진료소에 후송하지 않은 점이다.

또한 검체채취가 다음날인 2일 오전에 이뤄지고 확진판정이 밤 9시 넘어서 나와 결국 총 16시간동안 선제조치가 이뤄졌다.

도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이 야기되어 거듭 사과를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동선확인 결과 광주시 제이아트웨딩컨벤션, 광주 일곡중앙교회, 정읍 교도소 퇴원식, 그리고 신병 치료차 의료기관 두곳을 찾았다. 또한 방문장소는 방역 소독처리 하고 가족 및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광주의 아픔 보듬는다'

### 광주시 요청 받아들여 도내 의료기관 21개 병상 공유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의 아픔을 함께 보듬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을 공유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광주광역시 요청을 받아들여, 권역별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도내 의료기관의 21개 병상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3일 밝혔다.

공유 병상은 전북대병원 10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3, 호흡기응급병상 7), 원광대병원 1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 군산의료원 10병상(일반병상 10) 총 도내 3개 의료기관의 21개 병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광주, 전남과 공유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현재 병상 57개(전북대

병원 17, 원광대병원 6, 군산의료원 34)를 확보하고 있으며 환자발생 규모에 따라 단계별 병상 확보를 통해 최대 338병상까지 환자 수용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전지역병상은 도내 환자 발생에 대비해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우리도는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병상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광주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음을 인지하고 힘을 합해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발 농업인력난 공급

### 전북도,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총 12만2266명

전북도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어려워진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총 122,266명의 인력을 공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송하진 도지사는 국무총리에게 방문 비자(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을 제안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로 인해 올해 14명의 외국인이 계절근로로 전환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 부족은 체감상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

또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작년 3만31명 보다 1만 7,785명 늘어난 4만7,916명(159%)의 인력을 공급한 것도 한몫했다.

전북도는 지금까지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먼저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농

축산식품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등 농정부서와 농협, 자원봉사센터, 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농업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했다.

이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4만7,916명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한편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확대를 민간인력사무소와 맞물리 나타날 수 있었으나 도시근로자 취업시 현장교육비 지원과 반장수당 지급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시켜 전국에 모범사례를 보였다.

또한 농촌일손돕기를 적극적으로 추진, 도와 시군 및 농협 등 공공기관에서 6,761명,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629명, 군장병 177명 등이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끝으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외국인 입국제한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농가를 위해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지역 상황을 전하고 발빠르게 대처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